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82 벽송빌딩 6층 TEL 02-2038-0977 FAX 02-2038-0978
홈페이지 newstapa.org / 트위터 @newstapa / 이메일 newstapa@newstapa.org

<특별기획 : MB의 유산> 오늘 시작 제1차 : 단군 이래 최대 돈 잔치, 4대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오늘(11월 26일)부터 지난 이명박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특별기획 'MB의 유산' 시리즈를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MB 시대의 적폐는 책임자 규명은커녕 제대로 된 평가 작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뉴스타파는 MB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민간인 사찰 등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MB유산을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청산 작업임을 밝혀둔다.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은 MB가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4대강 사업을 집중 보도한다.

2주 동안 <MB의 유산1:단군 이래 최대 돈 잔치, 4대강> 집중 보도

물경 22조원이 들어갔다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4대강.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환경에 집중돼 왔다. 뉴스타파는 22조 원이라는 돈이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다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4대강 전체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전부 입수해 두 달여 동안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4대강을 둘러싼 이권 네트워크를 두 달여에 걸쳐 해부했다.

오늘(11월 26일)은 동지상고 커넥션 집중 해부

- ① 4천억 동문회, 낙동강을 접수하다
-동지상고 수주액, 울산광역시보다 10배

뉴스타파가 하도급 계약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공구 참여한 동지상고 출신 건설사는 모두 28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지상고 졸업생이 공사 수주 당시 이사급

이상으로 재직한 회사들이다. 원청으로 참여한 건설사는 9개, 하청은 18개, 설계감리 1개다.

이들이 낙동강 사업에서 수주한 금액은 총 4,286억 원이다. 인구가 두 배가 넘는 울산의 경우 (포항:52만 명, 울산 116만 명)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개, 수주액은 440억 원에 불과하다. 일개 고등학교 동문들이 광역시 업체들 보다 10배에 이르는 공사액을 수주한 셈이다.

이들 동지상고 출신 업체들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 현대엠코, 극동엔지니어링 등 대기업 제외, 신용평가 회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17개 업체 대상)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4,613억 원에서, 4대강 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2011년 1조43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포항 소재 기업을 분석한 결과 29개 참여사 가운데 동지상고 출신은 22개,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낙동강 30공구의 비밀

-‘정,경,연 동지상고 카르텔’이 공사비 90% 수주

동지상고 출신 임원들이 속해 있는 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공사를 수주한 구역은 낙동강 30공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 4곳, 하청업체 3곳 등 총 7개 동지상고 출신 건설사가 이 구역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30공구 전체 사업비 1900억 중 90%인 1700억원 규모다.

30공구의 대표사인 포스코건설은 4대강 사업 당시, 영업 수주를 총괄하던 이태구 부사장이 동지상고 18회 출신이다. 포스코건설과 원청으로 함께 참여한 진영종합건설은 동지상고 28회 출신의 김호동씨가 4대강 사업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4대강 사업 수주 이후 회사를 떠난 동대건설 문경환 대표는 동지상고 19회를 졸업했으며, 동양종합건설은 동지상고 33회, 25회 출신 인사가 4대강 사업 기간 각각 이사와 계열사 대표를 지냈다.

동지상고 출신 인사들은 하도급업체에서도 발견됐다. △한동산전(동지상고 24회, 19회) △포철산기(동지상고 33회) △태창건영(동지상고 24회) 등은 모두 포스코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았다.

특히 30공구에는 언론사를 계열사로 둔 곳도 다수 발견됐다. 동대건설은 경북일보를, 동양종합건설은 영남일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이들 언론사의 기사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30공구에는 포항시 의원이 등기이사로 겸직한 건설사도 있었다. 태창건영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직한 장복덕 전 이사는 동지상고 24회 출신이자 현 포항시의회 부의장이다. 그는 건설사에 재직 중이던 2010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③ ‘퇴임 후 4대강 대책’ 보고서 입수
-“동지상고 출신 김철문 4대강 추진본부 국장이 작성 주도”

뉴스타파는 동지상고 출신인 김철문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국장과 관련된 한 형사소송에서 법원 증거물로 제출된 ‘4대강 현안 사항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 MB 집권 말기인 지난해 3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작성된 13쪽짜리 보고서로 MB 임기말 4대강 홍보 대책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4대강이 공격받는 이유를 “전 국민이 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선동성 목소리가 큰 세력의 구호에 쉽게 경도되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과 좌파언론, 시민단체의 공격이 예상”된다고 하며 “4대강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을 활용해 세력화”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포털과 SNS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하고 있으며 ‘4대강 지키기 사단법인’이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A씨는 김철문 전 국장의 측근으로 이 문건은 김철문 전 국장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보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자신은 이 문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끝>

2013년 11월 26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